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침묵하라, 더 큰 소리로

STAY SILENT, YET IMPACTFUL

KBS교향악단 제802회 정기연주회

MAH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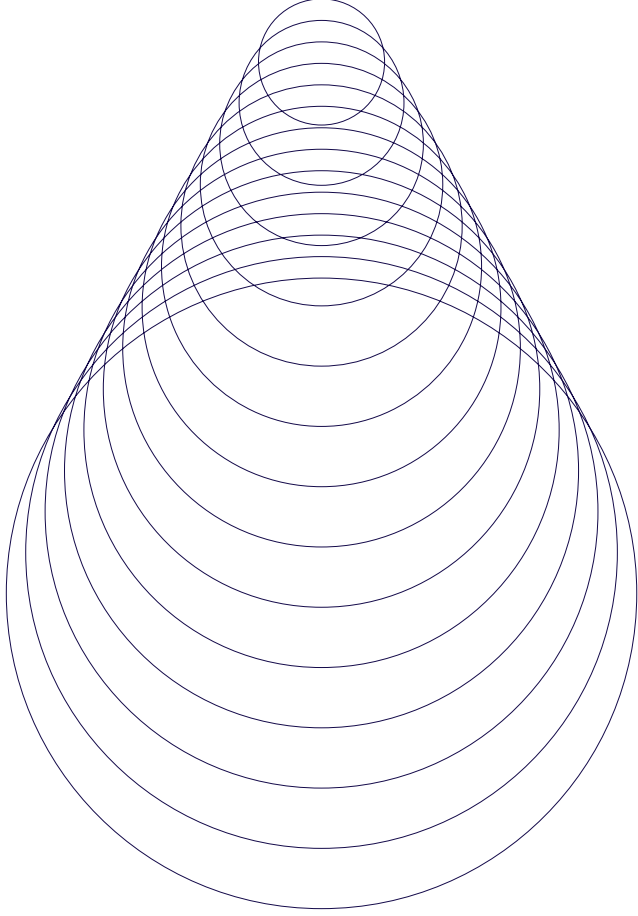
SYMPHONY NO.3

주최/주관 KBS 교향악단

2024. 5. 26.(Sun) 17:00

예술의전당 큰서트홀

후원 | 더클래스효성 KDB산업은행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 ①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 ②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 ③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 ④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⑤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말러
G. Mahler

교향곡 제3번 d단조
Symphony No.3 in d minor

100'

1악장 힘차고 단호하게 (34')
Kräftig. Entschieden

목신 판이 깨어나고 여름이 행진해오는 것
Pan erwacht. Der Sommer marschiert ein
(Pan Awakens – Summer Marches In)

2악장 매우 적당하게 (10')
Tempo di Menuetto, Sehr mäßig

초원의 꽃들이 내게 말하는 것
Was mir die Blumen auf der Wiese erzählen
(What the Flowers and Meadows Tell Me)

3악장 서두르지 말고 (18')
Comodo. Scherzando. Ohne Hast

숲 속의 동물들이 내게 말하는 것
Was mir die Tiere im Wald erzählen
(What the Animals of the Forest Tell Me)

4악장 극히 느리고 신비스럽게 (9')
Sehr langsam. Misterioso

인간이 내게 말하는 것
Was mir die Nacht (der Mensch) erzählt
(What the Night (Man) Tells Me)

5악장 익살스러운 템포로 거리낌 없이 (4')
Lusig im Tempo und keck im Ausdruck

천사들이 내게 말하는 것
Was mir dir Morgenglocken (Engel) erzählen
(What the Morning Bells (Angels) Tell Me)

6악장 느리고 고요하게 풍부한 감정으로 (25')
Langsam. Ruhევoll. Empfunden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
Was mir die Liebe erzählt
(What Love Tells Me)

※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인터미션 없이 100분간 연주됩니다.



PIETARI INKINEN

CONDUCTOR

지휘 피에타리 잉키넨

“자연스러운 음악성으로부터 나오는 매력적인 사운드”-〈그라모폰〉

피에타리 잉키넨은 KBS교향악단의 제9대 음악감독으로 2022년부터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다. 또한 잉키넨 음악감독은 핀란드 출신으로 2017년부터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를 맡고 있다.

그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한 바 있다. 2023/24 시즌에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 데뷔하였고,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에서 바그너의 「탄호이저」 프로덕션을 이끌었다.

그는 2021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발퀴레」를 지휘하였으며, 2023년에는 「니벨룽의 반지」 전막 프로덕션을 지휘한 바그너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하다. 앞서 호주 멜버른 오페라 하우스에서 「니벨룽의 반지」 4부작 전막 공연을 성황리에 지휘한 그는 이 공연으로 2014년 헬프만 어워드에서 ‘최고 지휘자’ 상을, 2016년 그린 룸 어워드에서 ‘최고 오페라 지휘자’ 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에도 핀란드 국립 오페라, 드레스덴 젤퍼오페라,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라 모네 극장, 베를린 국립 오페라 극장, 뮌헨 국립 극장 등에서 다양한 오페라 작품을 선보였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재임할 당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들과 핀란드 작곡가 라우타바라의 교향곡 3부작 연주 음반을 지휘하였으며, 수석지휘자로 활동했던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도 산토리 홀에서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의 실황 녹음을 남겼다. 도이치 방송 교향악단의 바그너의 지크프리트 발취곡, 프로코피예프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음반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실력파 바이올리니스트이기도 한 피에타리 잉키넨 감독은 쾰른 음악원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자카르 브론을 사사하고, 이후 헬싱키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지휘를 수학하였다.



OKKA VON DER DAMERAU

MEZZO-SOPRANO

메조소프라노 오카 폰 데어 다메라우

오카 폰 데어 다메라우는 동시대 최고의 메조소프라노로 자리매김했다. 바그너나 베르디 오페라의 등장인물이든, 말러나 쇤베르크의 가곡이든, 함부르크 출신의 다메라우는 강한 중음역대와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발음으로 인물과 가사의 개성을 살리며 관객의 마음을 울린다.

2023/2024 시즌 동안 다메라우는 바르셀로나의 리세오 대극장에서 베르디 『가면무도회』의 울리카 역을, 빈 국립 오페라하우스에서 드보르작 『루살카』의 예지바바 역을,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하우스에서 바그너 『탄호이저』의 비너스 역을 맡으며, 오케스트라 공연에도 여럿 등장한다. 뮌헨 필하모닉과 독일 및 해외 무대에 오르면,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 관현악단과 말러의 8번 교향곡 무대에 오른다. 이 밖의 해외 공연 일정으로는 도쿄 봄 음악제가 있으며, 서울에서는 피에타리 잉키넨이 이끄는 KBS교향악단과 함께 말러의 3번 교향곡을 함께 연주한다.

다메라우는 키릴 페트렌코가 이끄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단의 앙상블 단원으로 다년간 활동하며 바그너의 『신들의 황혼』에서 발트라우테 역을, 『라인의 황금』과 『지크프리트』에서 에르다 역을, 치머만의 『병사들』에서 샤를로테 역을, 특히 베르디의 『일 트로바토레』에서 아주체나 역을 맡았다.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단에서의 활약 이후 다메라우의 커리어는 세계로 뻗어나갔다. 라스칼라 극장에서 2015년 데뷔한 이후, 가장 최근에는 2023년 여름에 엠마 단테가 새로이 연출하는 『루살카』로 라스칼라 무대에 다시 섰다. 다메라우는 이 밖에도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 빈 국립 오페라 극장, 타폴리 산 카를로 극장, 마드리드 왕립 극장, 드레스덴 젬퍼오퍼 극장,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 등 세계 주요 오페라 무대에 자주 오른다.

다메라우는 2022/2023 시즌 동안 새로운 배역을 여럿 맡으며 찬사를 받았다. 특히 두 개의 흥미로운 배역으로 자신의 레퍼토리를 확대했는데, 하나는 코넬리우스 마이스터가 이끈 슈투트가르트 국립 오페라단에서 『발퀴레』의 브륀힐데 역할이었고, 또 하나는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단에서 대성공을 거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주인공 역할이었다. 다메라우의 방대한 레퍼토리 중 다른 중요한 배역으로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브란게네가 있다. 2017년 시몬 영이 지휘한 바이에른 국립 오페라단에서 평단과 청중의 찬사를 받으며 처음 연기했고, 같은 무대에서 2021년 새로운 프로덕션으로 키릴 페트렌코의 지휘 아래 연기했다. 구스타보 두다멜이 이끄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도 파리 국립 오페라 극장과 다른 세미 스테이지 공연에서 연기하기도 했다.

다메라우는 다양한 오페라 무대가 아닌 콘서트 무대에서도 예술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시카고 교향악단, 빈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베를린 슈타츠키펠레, 산타 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하고 있다. 2018년에는 프란츠 벨저 뉘스트의 지휘 아래 클리블랜드 관현악단과는 처음으로 브란게네 역할을 노래했다. 다른 주요 콘서트 활동으로는 암스테르담 콘세르트헤바우에서 에드워드 가드너와 함께한 릴리 불랑제의 『시편 130편』 무대, 그리고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다니엘 바렌보임과 함께한 말러의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무대가 있다.

다메라우는 독일 가곡에도 큰 열정을 가지고 있어, 특히 파비오 루이지가 이끄는 취리히 필하모닉과 함께 녹음한 프랑크 마르탱의 연가곡집 『코르넬 크리스토프 릴케의 사랑과 죽음의 노래』 음반을 2017년에 발매해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다메라우는 2006년 베니스에서 열린 ‘바그너 전문 국제성악콩쿠르(International Singing Competition for Wagnerian Voices)’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뮌헨 오페라 페스티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김종현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인 고양시립합창단은 2003년 한국 합창계의 관심 속에서 창단되었다. 뛰어난 기량과 윤택한 하모니를 자랑하는 고양시립합창단은 정기연주회, 특별기획 연주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연 80여 회의 크고 작은 공연으로 고양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합창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사람 중심, 시민 제일주의를 수행하며 다양한 형태의 합창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양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고양시립합창단은 2013년 한국을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초청받아 음악의 도시 '크론펜르크'와 하이든의 도시 '아이젠슈타트' 공연을 통해 동·서양의 레퍼토리를 아름다운 하모니와 완벽한 앙상블로 소화한 합창단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2016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열린 '자르브뤼켄 음악 축제'와 '라 세즈 뒤유 음악축제'에 특별 초청받아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가진 앙상블로 평가받았다.

2024년 고양시립합창단은 깊은 음악성으로 작곡가의 이야기를 꼼꼼한 음악적 디테일로 완성하여 전달하는 합창 지휘자 김종현을 제8대 상임지휘자로 받아들이며 또 한 번의 비상을 추구하고 있다.



서울모테트합창단

상임지휘자
박치용

1989년 창단 이후 35년째를 맞이하는 서울모테트합창단(상임지휘자 박치용)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민간 프로페셔널합창단으로 최상의 합창음악을 선보이며 한국 음악문화를 선도해 온 합창단이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국내외 많은 평론가들로부터의 호평은 물론 1997년 협연했던 영국의 작곡가 겸 지휘자 존 루터와 2013년 협연한 독일의 헬무트 릴링 등 합창음악과 교회음악의 세계적 권위자들과 수많은 국내외 유명 음악가들로부터 음악성과 연주력이 세계 정상급 수준의 합창단이라는 찬사를 들어왔다.

창단 이후 1,500여회의 연주를 통해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하고 폭 넓은 레퍼토리로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보여 왔으며 특별히 바흐 음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연주로 한국 사회와 음악계에 큰 발전을 기여하고 있다.

서울모테트합창단은 2002년, 2005년 2차례의 독일 순회연주에 이어 “2015 Thüringer Bach Wochen”에 공식 초청되어 연주하였으며 2002년 일본정부 초청연주,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 등 10여개 국가에 초청되어 100여회 연주하였고, 2019년 창단 3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바흐음악축제인 “2019라이프치히 바흐페스티벌”에 한국의 합창단 최초로 공식 초청 받아 연주하였다.



**SEOUL MOTET
CHOIR**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지휘자
임진순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2003년 11월에 창단되어 맑고 고운 하모니와 역동적인 안무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으며 고양시민에게는 물론이고 전국의 합창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해마다 2회의 정기연주회와 꽃박람회 공연, 송년음악회와 관내 초청음악회 등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만나고 있다. 특별히 고양600년 기념공연, 세월호1주기 추모공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 토크콘서트, 제73주년 광복절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외부의 초청을 받아서 협연한 연주로는 '한국합창심포지움', '탐라전국합창축제', 2007 러시아 스타니 슬라프스키극장 오페라 「카르멘」, 2008 오페라 「토스카」, 2010 오페라 「라보엠」, 2019 콘서트오페라 「라보엠」, KBS교향악단 「전쟁레퀴엠」, 서울시교향악단 「말러교향곡 8번」, 국립합창단 「카르미나 부라나」, 부천시립합창단 「어린이음악회」 등이 있다.

또한 체코프라하소년소녀합창단, 빈소년합창단, 모나코왕실소년합창단, 헝가리 칸테무스합창단, 드레스덴필하모닉소년소녀합창단 내한공연에서 함께 연주하였으며 한국-필리핀 수교70주년 기념으로 마닐라 퀘존시티와 문뎀루빠시티에 순회공연을 다녀왔다.

고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고양시의 문화사절단으로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시를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GOYANG CIVIC
CHILDREN'S
CHOIR**

말러, 교향곡 제3번 d단조

G. Mahler, Symphony No.3 in d minor

작곡연도 1895~1896년

초연 전악장 1902년 6월 12일, 크레펠트에서 구스타프 말러의 지휘

편성 알토 독창, 여성 합창, 어린이 합창,

플루트4(피콜로 겸함), 오보에4(잉글리시호른 겸함), 클라리넷5(베이스 클라리넷, 작은 클라리넷 겸함), 바순4(콘트라바순 겸함), 호른8,

트럼펫4, 포스트 호른, 트롬본4, 튜바, 팀파니2, 큰북,

작은북(오프스테이지 겸함), 탬버린, 심벌즈, 트라이앵글,

탐탐, 글로켄슈필, 차임벨, 루테, 하프2, 현5부

연주시간 약 100분

MAHLER GUSTAV

1895년 6월초, 말러는 여름마다 작곡과 휴가를 위해 즐겨 찾는 오스트리아 슈타인바흐의 아터호수에 도착한다. 그는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아터호수의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 특히 푸른 초원 위에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들꽃들을 대면하게 된다. 자 연속에서 빛나고 있는 꽃의 아름다움과 찬란한 생명력이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준 것일까? 말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대기자인 나탈리 바우어-레히너의 말에 따르면 '말러가 그 곳에 도착한 순간, 그에게 새로운 교향곡의 2악장 <초원의 꽃들이 내게 말하는 것>에 대한 영감이 넘쳐났다'고 한다. 이 후 말러는 여름 내내, 10주동안 1악장을 제외한 모든 악장의 구성을 한번에 마무리하고 이듬해인 1896년 여름, 마지막 1악장까지 작곡하였고, 가을에 최종 스코어를 완성시켰다.

말러는 아터호수에 핀 꽃을 보고 3번 교향곡의 최초 영감을 얻었다. 말러는 그 꽃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생명을 수집하듯, 이 교향곡 안에서 삼라만상의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최후에는 우주적 영역을 뛰어 넘어 신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혀나갔다. 생명 없는 혼돈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어떻게 신의 영역까지 도달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감상포인트가 될 것이다.



출처: 클림트협회

출처: 말러파운데이션



PART 1

1악장. 힘차고 단호하게 Kräftig. Entschieden

목신 판이 깨어나고

Pan erwacht(Pan Awakens)

깊은 잠에 취해 있는 목신 판(Pan)을 깨우듯 8대의 호른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소리를 내며, 거대한 교향곡은 시작이 된다. 곧이어 활력 넘치는 외침은 어느새 사라지고 무거운 긴장감에 휩싸인 채 말러 시그니처인 '장송행진곡'풍의 날카로운 리듬이 트럼펫을 통해 등장한다. 드문드문 유쾌한 행진곡 소리는 아직 멀리에서만 감지된다. '이 교향곡은 생명이 없는 자연에서 시작'한다고 했던 말러의 말처럼, 1악장은 생명 없는 죽음과 혼란만이 가득하게 시작된다.

여름이 행진해오는 것

Der Sommer marschiert ein(Summer Marches In)

어둡고 음산한 고요함 속에서 판의 주제가 등장한다. 날카로운 클라리넷의 소리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라는 판의 외침같다. 이에 응답하듯, 행진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어느새 모든 악기가 총 출동하여 거대한 행진곡을 연주한다. 오보에의 흥겨운 선율은 얼큰하게 취해있는 바쿠스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고, 심벌즈, 트라이앵글, 루테 등 타악기들 소리는 행진의 흥을 돋구는 악사들의 연주를 연상케 한다. 바쿠스 특유의 난잡함, 혼란스러움 그리고 흥겨움이 뒤섞인 이 음악은 규칙없이 전개되다가, 결국 '남쪽 폭풍'에 모조리 휩쓸려 날라가 버린다. 세상이 깨끗이 정리되자, 작은북과 함께 최초 호른 8중주가 다시 시작되며 재현부가 시작된다. 재현부는 도입부와 마찬가지로 다시 음산한 트럼펫의 장례 행진곡과 바쿠스 행진곡은 등장하지만 더 이상 판의 주제는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에 종결부와 함께 화려하고 강력하게 마무리된다.

PART 2

2악장. 매우 적당하게 Tempo di Menuetto. Sehr mäßig

초원의 꽃들이 내게 말하는 것

Was mir die Blumen auf der Wiese erzählen

(What the Flowers and Meadows Tell Me)

목가적인 오보에 노랫소리는 아터호수 초원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들을 연상케 하고, 이어서 들리는 현악기 노래는 바람에 살랑거리며 넘실넘실 흘러나오는 꽃향기 같다. 이 교향곡 최초의 영감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초원의 꽃들이 내게 말하는 것'이라는 부제처럼 꽃의 아름다운 생명들이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건네는 것 같다. 특히, 트리오에 해당되는 빠른 무곡풍 음악에서는 그 다양한 꽃의 말들을 표현해내기 위해 현악기, 특히 바이올린 솔로와 더불어 제1, 제2바이올린이 빠른 템포 안에서 다양한 주법과 정교한 연주를 완벽히 해내야만 한다. 그 긴장감은 황홀하게 끝맺는, 바이올린 솔로의 2악장 마지막 음까지 지속된다.

3악장. 서두르지 말고 Comodo. Scherzando. Ohne Hast

숲 속의 동물들이 내게 말하는 것
Was mir die Tiere im Wald erzählen
(What the Animals of the Forest Tell Me)

3악장의 기본 템포 운용과 연주방식은 말러가 적은대로 매우 침착하고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음악적 내용은 스케르초풍으로 가득차 있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니만큼 예측불가하고 돌발적인 것이 특징인 스케르초와 딱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악기들이 펼치는 넓은 음역대의 소리, 다양한 아티큘레이션과 주법 등으로, 음악은 우리를 환상 속 사파리로 안내하는 것 같다.

음악의 중반부에서는 포스트 호른의 악구가 등장한다. 악기의 부재로 인해 오늘날은 플뤼겔 호른이 연주하며,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효과를 위해 주로 무대 밖에서 연주된다. 평화로운 포스트호른 선율에 야생의 역동성은 고요해지고 차분해지지만, 말러가 직접 써놓은 **Grob!**(거칠게)과 함께 등장한 숲의 동물들은 이전보다 더욱 맹렬한 에너지를 내뿜으며 화려한 피날레로 돌진해 나아간다.

4악장. 극히 느리고 신비롭게 Sehr Langsam. Misterioso

인간이 내게 말하는 것
Was mir die Nacht (der Mensch) erzählt
(What the Night (Man) Tells Me)

신화적 카오스와 자연의 이야기로 시작된 이 교향곡은 이제 인간에게 시선을 돌린다. 이미 작곡 초기단계부터, 말러는 삶의 근원적인 질문들을 ‘두 개의 텍스트’로 다루려했고 각각, 4악장과 5악장에 배치되었다.

4악장에서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 인간의 상태와 존재 깊이에 대한 성찰을 다룬 <심야의 음침한 노래>의 텍스트를 취했다. 세상이 모두 잠든 신비로운 밤을 표현하듯, 저음악기의 고요한 움직임으로 음악이 시작되고 이어 알토의 목소리가 ‘**오 인간이여...주의하라..! 이 깊은 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하며 정적을 깨니, 멀리서 오보에가 신비로운 소리를 내며 애처롭게 대꾸한다. 이후, 말러가 직접 악보에 ‘자연의 소리처럼 위로 끌어올려 연주하라’고 적은 3도 상행음형은 오보에와 잉글리시호른이 번갈아 가며 연주한다. 기묘한 새소리처럼 들리는 이 음악은 깊은 고독과 번민으로 가득한 철학적인 밤을 떠오르게 한다.

호른 앙상블과 현악기, 특히 바이올린 솔로가 한데 어우러지는 가운데, 알토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통이 말하길, 사라져라! 그러나 모든 기쁨은 영원으로 향하려 하나니! 깊고 깊은 영원을.**’ 하며, 시의 마지막 구절을 노래하자, 저음악기의 고요한 움직임이 다시 등장하고 그렇게 신비로운 밤의 산책은 마무리 된다.

5악장. 익살스러운 템포로 거리낌 없이 Lustig Tempo und keck im Ausdruck

천사들이 내게 말하는 것
Was mir dir Morgenglocken (Engel) erzählen
(What the Morning Bells (Angels) Tell Me)

‘딩동~ 덩동~’(원어 가사로는 Bimm bamm)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종소리와 함께 천상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음악은 시작된다. 말러가 악보에 적어놓은 **keck**(거침없이)에 따라 여성합창단이 밝고 유쾌하게 ‘**세 천사가 달콤한 노래를 부른다**’ 하며 노래부른다.

5악장은 독일민속시집인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에서 발췌된 <거지 아이의 구걸하는 노래> 가사를 취하고 있다. 베드로는 예수와의 만찬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근심하며 울지만, 결국 신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죄사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희망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천사같은 아이들은 종소리를 흥내내며 노래하고, 여성합창은 가사 전반적인 부분을, 알토솔로는 베드로 역할을 맡아 노래 부른다. 더불어 말러는 영롱한 소리의 글로켄슈필과 종소리 그리고 두 대의 하프를 천상의 음악같은 효과를 연출해낸다.

베드로가 참회한 후, 여성합창과 어린이들은 ‘**오직 영원하신 신의 사랑을 구하라! 그러면 너는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되리라!**’라며 축복하고 다시 ‘딩동 덩동’ 소리를 내며 신비롭게 사라진다.

6악장. 느리고 고요하게 풍부한 감정으로 Langsam. Ruhevoll. Empfundener

사랑이 내게 말하는 것
Was mir die Liebe erzählt(What Love Tells Me)

천사가 사라지자마자 고요하게 (5악장 이후 끊임 없이 바로 6악장이 시작되도록 말러는 악보에 지시함) 현악기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들에게 말을 건넨다. 말러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은 끊임없이 현악기를 통해 흘러나와 온 공간을 가득 채운다. 하지만 늘 그렇듯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 호른 4대와 함께 바이올린이 요동치며 고통과 갈등이 격해진다. 행복이 영원하지 않듯 불행도 영원하지 않다. 나아가 불행 이후 찾아오는 행복은 이전보다 크다. 첼로로 시작된 아름다운 선율은 이전보다 완전무결하고 승고한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마치 천국문을 열고 환한 빛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린 ‘**사랑**’이라는 존재를 소개하듯이.

이 곡은 진화의 모든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거친 음악으로 쓰여진 한편의 ‘시(詩)’입니다. 그것은 ‘**생명 없는 자연**’으로 시작해 ‘**신의 사랑**’까지 발전합니다! (구스타프 말러)

글 | 김정규(지휘자)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오카 폰 데어 다메라우가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합창 가사 Lyrics

제4악장 가사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에서

O Mensch! Gib Acht!
Was spricht die tiefe Mitternacht?
Ich schlief, ich schlief,
aus tiefem Traum bin ich erwacht
Die Welt ist tief,
und tiefer als der Tag gedacht.

Tief ist ihr Weh,
Lust tiefer noch als Herzeleid.
Weh spricht Vergeh!
Doch all' Lust will Ewigkeit,
will tiefe, tiefe Ewigkeit!

제5악장 가사

<어린이의 이상한 뽀피리> 중에서

Es sungen drei Engel einen süßen Gesang,
mit Freuden es selig in dem Himmel klang.
Sie jauchzten fröhlich auch dabei:
daß Petrus sei von Sünden frei!

Und als der Herr Jesus zu Tische saß,
mit seinen zwölf Jüngern das Abendmahl aß,
da sprach der Herr Jesus:
"Was stehst du denn hier?
Wenn ich dich anseh, so weinst du mir!"

Und sollt' ich nicht weinen, du gütiger Gott?
Ich hab' übertreten die zehn Gebot!
Ich gehe und weine ja bitterlich!
Ach komm und erbarme dich über mich!

"Hast du denn übertreten die zehen Gebot,
so fall auf die Knie und bete zu Gott!
Liebe nur Gott in all Zeit!
So wirst du erlangen die himmlische Freud!"

Die himmlische Freud; ist eine selige Stadt,
die himmlische Freud, die kein Ende mehr hat!
Die himmlische Freude war Petro bereit't,
durch Jesum und allen zur Seligkeit.

오 인간이여! 주의하라!
이 깊은 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자고 있었다! 나는 자고 있었다!
그리고 깊은 꿈에서 깨어났다!
이 세상은 깊구나!
낮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구나!

너희 고통은 깊다!
쾌락은 비통함보다 깊다!
고통이 말하길, "사라져라!"
그러나 모든 기쁨은 영원으로 향하려 하나니!
깊고 깊은 영원을.

세 천사가 달콤한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천상에서 즐겁게 울려 퍼지고,
그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다.
베드로는 죄가 없다고.

그리고 주 예수께서 식탁에 앉으시어,
열두 제자들과 저녁을 함께 하셨다.
그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왜 여기 서 있느냐?"
내가 보니, 너는 내 앞에서 울고 있구나!"

그대 자비로운 신이여, 제가 울어서는 안되겠지만
저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저는 방황하며 괴롭게 울고 있습니다.
아, 오소서 그대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십계명을 어겼다면
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오직 영원하신 신의 사랑을 구하라!
그러면 너는 천국의 기쁨을 얻게 되리라!"

복된 도시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은 끝이 없다!
천국의 기쁨이 베드로에게 주어졌고
예수를 통하여, 모두에게 복되도록



KBS1 '인간극장', 「세 남자의 사랑교향곡」 방영

KBS1 간판 다큐멘터리 방송 '인간극장'에 KBS교향악단 단원 세 남자가 출연했다. 타악기 매튜 에른스터 단원, 튜바 우수이 노리토 단원, 트럼펫 남관모 수석이 그 주인공. 연주하는 악기도, 국적도 모두 다르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KBS교향악단에 모인 이 세 단원의 공통점은 모두 음악을 하는 여인들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 음악으로 꿈과 사랑을 모두 쟁취한 운 좋은 세 남자의 이야기, 「세 남자의 사랑교향곡」은 KBS교향악단 디지털 K-Hall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단 6명을 위한 특별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KBS교향악단 단원 9명이 인천 섬 지역의 초등학교 분교인 장봉분교(4월 11일)와 자월분교(4월 12일)를 방문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선보였다. 각 분교 학생이 유치원생 포함 8명, 6명인 걸 고려하면 관객보다 출연자가 더 많았던 섬. 문화적 혜택이 거의 전무한 곳이라 학생 관객의 열성적인 호응이 인상 깊었다는 후일담도 전해진다. KBS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교향악단의 사회공헌사업으로 문화소외 계층을 직접 찾아가 클래식 음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I S S U E

KBS교향악단 4월 주요 이슈

'KBS교향악단 제8회 여수음악제 업무 협약' 체결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KBS교향악단 제8회 여수음악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수시, (재)여수음악제, (재)KBS교향악단이 4월 16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여수음악제는 지역사회 클래식 음악 보급과 음악교육을 통한 청소년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한 이래 올해 8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 클래식 음악 축제의 성공적 모델로 정착하였다. '여수음악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학교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2024년 제8회 여수음악제의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턴십 2기 선발

미래의 예술가 육성을 위한 KBS교향악단X한국예술종합학교가 함께하는 2024년 학생 인턴십 과정 2기가 선발되었다. 오디션을 거쳐 총 9명의 학생(제1바이올린 김수연, 제2바이올린 이예령, 박예진, 비올라 이태형, 첼로 김유림, 첼로 심수연, 바순 최찬열, 호른 민예원, 트럼펫 이영훈)이 최종 합격하였다. 인턴십에 합격한 학생들은 KBS교향악단의 정기·기획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에서 객원 연주자로 참여해 견문을 넓히고, 단원들의 연주 관람 및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전문 연주자로서의 실력을 키워 나갈 예정이다.



Conductor

지휘 / 요엘 레비

YOEL LEVI



우주 안에
하나의 인류

HUMANKIND IN THE UNIVERSE

Narrator

베이스바리톤 / 사무엘 윤

SAMUEL YOUN



2024. 6. 29.(Sat) 17:00

예술의전당콘서트홀

Seoul Arts Center

PROGRAM

슈want너 세계를 위한 새 아침: "자유의 여명" (극내 초연)
J. Schwantener New Morning for the World: "Daybreak of Freedom"

홀스트 '행성' 작품32
G. Holst The Planets, Op.32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참가해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 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사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창록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제1바이올린

악장* 부악장 수석+ 부수석****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박강현**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해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제2바이올린
비올라

권민지+ 임정연** 안지현**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진덕+ 한벨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이유현

첼로
더블베이스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플루트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클라리넷

이지민+ 김종아** 조성호

바순
호른

손한요** 이승훈** 박한 양수현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트럼펫
트롬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김현준

베이스트롬본
튜바

남관모+ 김주원** 정용균 김승헌

림파니
타악기

윤지언

정다운
Norito Usui

하프

이원석+

Jason Yoder+ 장세나 Matthew Ernster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Markus Wolf*
(Bayerische Staatsoper 악장)

플루트

유지홍+

클라리넷

조성호+

호른

Mischa Greull*

트롬본

Jonathon Ramsay+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공연지원파트)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인턴** 위가를 허효정
(약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민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사원** 차하영 장태형 **PD** 서영재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정의 유연철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후원금액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 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주차권 증정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동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 및 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공연장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 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재)KBS교향악단 전화 | 02-6099-7407 /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후원회원 가입의 길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이사	한창록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학 유진기업(주) 사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수희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KBS교향악단 후원회

Concerto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영호 일신방직(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 전)KBS교향악단 이사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 현 KBS교향악단 이사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Prelude	박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 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흥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종효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해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 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운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Nocturne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3년 당신을 지지해온
셀리 포스처피딕

Life ON Sealy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 **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forever')